

P88

제주지역의 양식넙치, *Paralichthys olivaceus*의 스쿠티카증 발병 및 피해상황

정용욱 · 진창남 · 이창훈 · 오상필* · 허문수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대학교 해양생산과학부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

1991년부터 2001년 동안 넙치 양식시 피해가 많은 스쿠티카충 감염 및 피해상황을 제주도지역 넙치양식장과 종묘배양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제주도 지역 넙치양식장의 스쿠티카충 발병상황은 1996년까지는 전체발병건수의 10% 내외였으나 그 후 발병율이 증가하여 2001년에는 34.5%로 높아졌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의 월별 스쿠티카충의 발병동향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되고 있으나 7,8월이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5월에서 11월까지 많이 발생되었다. 이기간 동안의 스쿠티카충과 주요 세균성 질병의 혼합감염은 비브리오병과 복합감염이 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활주세균증, 에드워드병, 연쇄구균증 순이었다.

양식장에서 스쿠티카충 감염시 폐사율은 감염어 크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종묘생산과정(전장 7 cm 이하)에서 감염된 종묘를 입식한 경우는 평균 53.8%이었으며, 양성장에서 건강한 종묘를 입식한 후 양성과정에서 감염된 경우(전장 7 cm 이상)는 평균 13.2%였다. 넙치가 전장 25 cm 이상으로 성장했을 경우는 스쿠티카충 감염에 의해 대량 폐사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다.